

# 극동정유 발전 역사

1964년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극동정유는 그 모태가 되는 윤활기유 중심의 극동정유공업(주)에서 태동하여 많은 도전과 응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꾸준한 발전속에서 성장을 모색해온 극동정유는 1988년 11월 충남 서산에 6만B/D 규모의 상압정제시설을, 다음해인 1989년 11월 3만4천 B/D 규모의 중질유 분해시설을 갖춘 최첨단 정유공장을 신설하여 서해안시대와 경질유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1992년 11월 19일 창사 28주년을 맞아 극동의 역사를 조명해본다.

-극동 홍보실 제공-



극동정유주식회사  
대표이사  
崔東奎

## 1. 창업전사

극동정유의 모태인 극동정유공업(주)는 우리나라 윤활유 공급의 효시로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산업활동에 기여하였고 순수민간자본에 의한 공장 건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출범한 윤활유회사였다.

당시 윤활유 수급상태는 수입품 및 군수품의 암거래 및 폐유정제로 열악한 상태였다. 극동정유공장은 설비 시운전의 어려움과 초반 판매활동의 부진을 딛고 판매활동과 생산에 호조를 보이게 되었고 윤활유 수입금지 조치로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 2. 회사의 설립과 성장기반 구축 (1964~1968)

유탄유 시장의 팽창과 조유 조달의 어려움속에서 극동은 유탄유, 연료유, 아스팔트 등의 본격적인 석유정제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11월 12일 석유류 정제업 허가를 취득한 후 19일 회사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극동 석유공업(주)가 탄생되었는데 이 회사가 오늘날 극동정유주식회사의 모태인 것이다.

극동석유공업을 설립함으로써 극동은 본격적인

유탄유 및 아스팔트 연료유등의 제품생산을 개시하면서 열악한 제품의 성상의 개선에 노력하면서 아스팔트 제품을 개발하여 1967년이후 극동의 아스팔트시장 점유율은 49.9%에 달할 정도였다.

## 3. 경영합리화와 도약의 모색 (1968~1977)

극동석유공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딛고 일대 도약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메이저인 ROYAL DUTCH SHELL과 합작투자를 한 1968년도는 제2차



석유정제업에 진출하여 조유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원료면에서도 바로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

상압정제 3,000배럴, 감압정제 2,000배럴의 공장건설에 따라 조유가 국산화 되었고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공장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극동정유 자체 기술과 노력으로 완공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다.

극동석유공업이 창립된 1964년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6.3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으나 경제면에서는 전력, 석탄, 시멘트 등 기간산업 분야가 확충되었으며 특히 수출실적이 1억달러를 돌파한 기록을 남기는 등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한 중요한 한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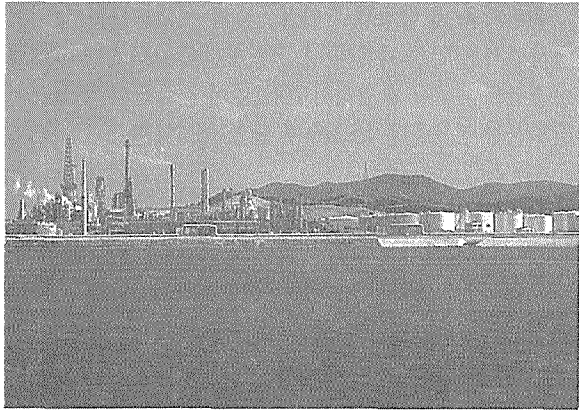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에 해당하는 해였다.

이 당시 정부의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에 따라 석유수요가 급증되었고 호남정유('67 설립), 경인에너지('69년 설립)등이 잇달아 정유업에 진출하였다.

'64년설립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온 극동석유공업은 '68년에 와서 자본금이 1억, 연간 제품생산능력이 약 10만배럴에 이르는 중견 석유업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성과 유탄유시장의 고급화에 대처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합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극동은 합작선을 물색하던 중 1968년 9월 10일 한국진출의 기회를 노리던 SHELL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1969년 1월 31일 극동



셀석유(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SHELL과의 합작을 계기로 경영의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된 극동정유는 2만B/D 증설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기존 업계의 반발로 좌절되었고 단지 극동의 자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시설의 증설에 만족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을 맛보기도 하였다.

고급운활유의 생산 및 시설확장에 따라 판매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조직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극동셀 판매회사(현재 세일석유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를 설립('73.12.24)하여 대기업과의 경쟁에 대처하였다.

극동은 SHELL사와의 합작을 통하여 당초의 목적인 시설의 대형화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자금운영면에서 안정을 찾았고 기술적 KNOW-HOW와 함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과학화"를 도모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한편 내부정책의 변화와 ASIA에서의 과잉투자를 우려하였던 SHELL측과 극동은 증설문제로 이견을 보이게 되었고 SHELL사와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증설을 추진하려던 극동은 SHELL측의 50% 지분은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 지분은 현대그룹이 인수함으로써 현대그룹이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이로서 상호를 1977년 5월 30일 극동석유(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 4. 전환기(1978~1980)

이 시기에 와서 정유사의 시설확장경쟁이 벌어지고 석유류의 수요가 증감되면서 극동정유는 중·장

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6만B/D 증설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77년 8월 1일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상압증류탑의 확장공사부터 착수하였다. 상압정제시설 10,000B/D, 감압증류시설 7,000B/D 등 신증설을 진행하였고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한편 극동은 사업규모의 적정규모 미달의 문제로 고정비 및 운임부담이 가중되고 구매경쟁이 약화되었고 시장이 운활기유, 아스팔트 중심에서 B-C 등 연료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약화되었으며 연료유와의 끼워팔기 성행으로 운활부문의 경쟁이 격화되는 등 창업이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극동은 증설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으며 '81년 1월 24일 동자부로 부터 증설허가를 취득하였다.

#### 5.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1980~1986)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의 불황 속에서 국내정유사들도 또한 어려움을 겪었고 극동정유는 1980년 장홍선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는 등 경영진 및 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여 60,000B/D 증설에 대비 하였다.

시설 및 원유도입방법을 개선하였으며 GETTY OIL과의 합작을 성사시키고 영국의 B.P 사와의 합작을 추진하였으나 여러사정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한편 1986년 2월에는 인화, 창조, 성실, 봉사의 사훈을 제정하고 조병화 님의 작사와 김희조 님의 작곡으로 사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 6. 대산정유공장의 건설

'60년대 말부터 대규모의 시설확장을 시도하여 왔던 극동정유는 운활기유와 아스팔트 위주의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종합석유정제시설을 갖추어 본격적인 정유업체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극동정유는 '81년 1월 24일 일반정제시설의 허가와 함께 '82년 7월 12일 중질유 분해시

설의 증설허가를 받았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건설은 석유류 소비의 경질화 추세에 대처하고 원유도입선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장점과 저유황유 공급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및 국제수지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의 의의를 지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당시의 유가체제하에서는 경제성이 결여된 것이기도 하였다. '84년 4월 23일 공장의 입지를 부산에서 충남 대산으로 변경하고 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56.56HA(약 5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순차로 주공정시설, 유틸리티시설, 부대시설등을 건설하여 일반정제부문은 '88년 11월 18일, 중질유 분해시설은 '89년 11월 13일 준공하여 '89년 11월 13일 대통령의 참석하에 준공식을 가졌다. 대산공장 준공으로 극동정유는 중질유분해시설의 효시가 되었으며 정유산업의 현대화를 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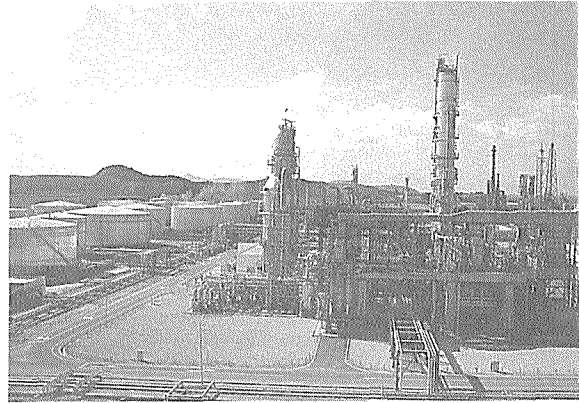
공장부지의 매립, 준공까지 민간의 힘만으로 건설된 대산공장은 중질유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으로 서해안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산공장 건설중에 극동정유의 상호변경을 추진하여 '88년 8월 1일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에서 극동정유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는 대산공장의 건설로 정제사업을 본격화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일반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석유제품판매업이라는 인상을 피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었다.

또한 극동은 상호를 변경함에 이어 대산공장 준공을 계기로 “깨끗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을 열어가 는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도입하였다.

## 7. 현재

극동정유는 20여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산공장의 준공으로 옹비의 나래를 막 펼치려고 하던 중 뜻하지 않았던 '90년 2월의 대산공장 중질유분해시설의 화재와 이에 따른 재정난 양재주간의 불협화음으로 극동은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



나 '91년 7월의 새경영진의 구성과 임직원들의 결속된 역량으로 회사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극동은 그동안 완벽한 공장시설의 문제와 자금확보의 어려움,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내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장위치가 수도권과 가까워 장기적 안목에서 유리하고, 증설에 대비하여 여유분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남들이 투자하지 않던 중질유 분해시설에 일찍 투자하여 준비하는 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유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때 석유의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나 공급의 증가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극동정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업경영에 유리하게 반영키 위해 극동은 장·단기 경영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추려 보면 단기경영과제는 부족자금의 완화, 경영체제의 개선, 수익성 개선, 경비절감이 있고, 장기경영과제는 적정인력체제의 확립, 신규 생산설비 확장 및 합리적 마케팅 조직의 확대, 종합에너지산업의 추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축적 등이다. 이러한 경영목표의 설정과 추진실적의 점진으로 조직을 긴장시키고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초를 닦는 것으로 내일의 성장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알차고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극동직원들은 위기를 선용하여 기회를 만든 기업의 모범이 되보이겠다는 야무진 신념으로 무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